

KIA 반전카드는 '불펜 총력전'

양현중-토마스-김진우-김병현 '4선발'

송은범·임준섭, 불펜 합류 '4강 승부수'



'호랑이 군단'이 판세 뒤집기 위해 선발 같은 불펜을 내세운다.

4강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KIA 타이거즈에게는 마운드 운영의 묘가 중요한 한 주다. 12일에 이어 13일 NC와 홈경기를 치르게 된 KIA는 이를 휴식기를 보낸 뒤 넥센과 주말 홈 2연전을 맞는다.

올 시즌 고전을 면치 못했던 두 팀과의 대결이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있다. 2연전 사이에 끼여있는 휴식기가 그것이다.

난적과의 4경기를 치러야 하는 한 주지만 휴식기가 2연전 중간에 위치하면서, 선발 야구에 강한 불펜 야구까지 곁들여 마운드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후반기 2승10패의 전적으로 끝없이 추락했던 KIA는 8이닝 2실점에 빛나는 임준섭의 호투와 함께 기사 희생했다. 임준섭이 선발 야구를 깨우면서 위기 탈출의 답을 제시했다. 휴식기를 활용한 불펜 강화 전략도 마련됐다.

중간으로 자리를 옮긴 송은범에 이어 개근생을 넘어 모범생으로 진화한 임준섭이 이번 주 불펜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선발 같은 불펜'을 통해 뒷심 싸움을 하기 위한 전략이다.

에이스 양현중을 시작으로 토마스-김진우-김병현이 전면에 나서고, 송은범·임준섭이 제 2의 선발 역할을 위해 대기하게 된다. 최영필-김태영-어센시오의 필승조까지 간재하면서 마운드 싸움에서 KIA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초·중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타선도 뒷심 싸움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

지난 주 베팅 끝에서 극적인 3연승을 연출하는 동안 시즌 초반 보여줬던 다이내마이트 타선이 가동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팽팽한 뒷심싸움을 기울게 한 결정적인 승부처가 있었다. 마운드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찾아온 기회를 잘 살리면서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눈앞에 승리를 두고 번번이 뒷심 싸움에서 무너졌던 강적과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기대되는 필승전략. 휴식기를 활용한 강한 불펜 전략이 승리를 부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토마스



김병현



송은범



임준섭

덕아웃 특·특·특

▲“흔나려고.”
12일 훈련이 끝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던 김다원이 신종길을 향해 “장민이가 방망이 하나 주라고 하는데요”라고 말을 건넸다. 85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NC 모창민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다. 김다원은 광주 동성고 출신, 모창민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아마시절을 함께 한 친구 사이이다. 대학시절 한술밥을 먹으며 꿈을 키운 성균관대 동창이기도 하다. 신종길은 모창민의 광주일고 2년 선배. 모창민이 최근

타격 감각이 좋은 선배의 방망이를 탐한 것이다. “형도 방망이가 없다”고 집짓 모턴책을 하던 신종길은 “고등학교 때 창민이가 나한테 많이 흔냈다. 흔나려고 그런다”고 웃었다. 성적이 좋은 선수의 방망이는 다른 타자들에게는 인기 아이템. 지난 주말에는 롯데 전준우가 김주찬의 방망이를 들고 의 기강양하게 원정 덕아웃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감독님 부탁이 있습니다.”
타격 연습을 하던 나지완이 잠시 훈련을 멈추고 선동열 감독에게 발걸음을 했다. 선 감독에 앞에 선 나지완은 “부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구해주세요”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그게 샘플로 나온 거라서 두 개도 겨우 구한 것이다.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선 감독의 말에 “예, 알겠습니다”라면서 터

덕터덕 걸음을 옮기던 나지완. 그 모습에 선 감독의 웃음이 터졌다. 나지완이 선 감독에게 부탁을 한 것은 손등 보호대다. 최근 샘플로 제작이 돼서 일본 선수 몇 명이 사용하고 있다. 중계를 통해 제품을 본 선수들의 요청에 어렵게 일본에서 두 개를 공수해온 선 감독은 타자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선 감독은 “보고 좋으니까 자기도 탐나서 주라

는 것이다”고 사연을 설명하면서 웃었다. 판매용이 아니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 구하기 어렵다고 나지완을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선 감독은 바로 일본어 통역을 불러 현지에 연락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 필의 마음에도 속 든 제품이였다. 평소 팔꿈치 보호대도 착용하지 않는 필이지만 이날 훈련을 하면서 손등 보호대를 시험 착용했다. 삼성 배영수의 공에 맞아 손등 골절을 당하면서 고생을 했던 필. “착용을 했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말한 필은 “나의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이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필, “감독님 일본산 손등보호대 우리도 주세요”

기성용, 스완지 잔류

계약 연장 협상 돌입

한국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 기성용(25)이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 남기로 했다.

기성용은 12일 스완지 지역의 매체 웨일스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스완지시티의 장점을 잔뜩 설명하며 잔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스완지에서 뛰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스완지의 경기방식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스완지가 단순한 롱볼(긴 패스) 축구를 구사하지 않고 짧고 정교한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성용은 “스완지에서 뛰는 때는 많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서 뛰는 것보다 까다롭지만 그런 점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기성용이 에스턴 빌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휴젠킨스 스완지시티 회장이 직접 나서 기성용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BBC방송은 기성용과 스완지시티가 이런

분위기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기성용은 2012-2013시즌을 앞두고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웨일스 구단 스완지로 이적했다. 계약기간은 2014-2015시즌까지였고, 이적료 600만 파운드(약 100억원)는 당시 스완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성용은 미카엘 라우드루프 전 스완지 감독과의 불화설 속에 지난 시즌 잉글랜드 선덜랜드로 임대됐다가 돌아왔다. 그 사이 라우드루프 감독은 경질됐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개리 몽크 감독은 기성용을 스완지 전체 전열을 조율할 핵심 플레이 메이커로 보고 있다.

몽크 감독은 “나도 기성용을 원하고 구단도 기성용을 원한다”며 “기성용도 여기에 남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기성용은 세계 정상권을 넘보는 선수”라며 “이제 성숙해 책임감도 느낄 줄 알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기성용은 오는 16일 맨체스터의 울트라퍼드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 김민혁·한두솔 '태극마크'

〈동성고〉 〈광주일고〉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 최종 엔트리 합류

광주 동성고의 4번 타자 김민혁과 광주일고의 좌완 에이스 한두솔이 태극 마크를 달았다.

대한야구협회(KBA)가 제10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18명)를 12일 발표했다.

국내 1차 강화훈련을 통해 예비 엔트리 25명에서 18명이 최종 확정됐다.

투수는 광주일고 한두솔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으며, 동성고 김민혁 등 내야수 6명, 외야수 4명, 포수 2명으로 대표팀이 꾸려졌다.

이호근 마산고 감독이 사령탑을 맡으며 김경환 김해고 감독과 김병호 서울고 감독이 각각 투수코치와 타격코치로 선수단을 이끈다.

한편 이번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는 9월1일부터 6일까지 태극 방콕에서 열리며, 예선 리그 종료 후 각 조(A·B조) 상위 2팀 등 총 4팀이 크로스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한국에게는 4번째 우승도전이다. 199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회 대회에서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린 한국은 2003년 태극 방콕에서 열린 5회 대회



김민혁

한두솔

와 2009년 서울에서 열린 8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9회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일본에 1-6으로 패해 준우승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대표팀 선수들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고에서 제 2차 국내 강화훈련을 실시한 뒤, 30일 결전지인 태국으로 출국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